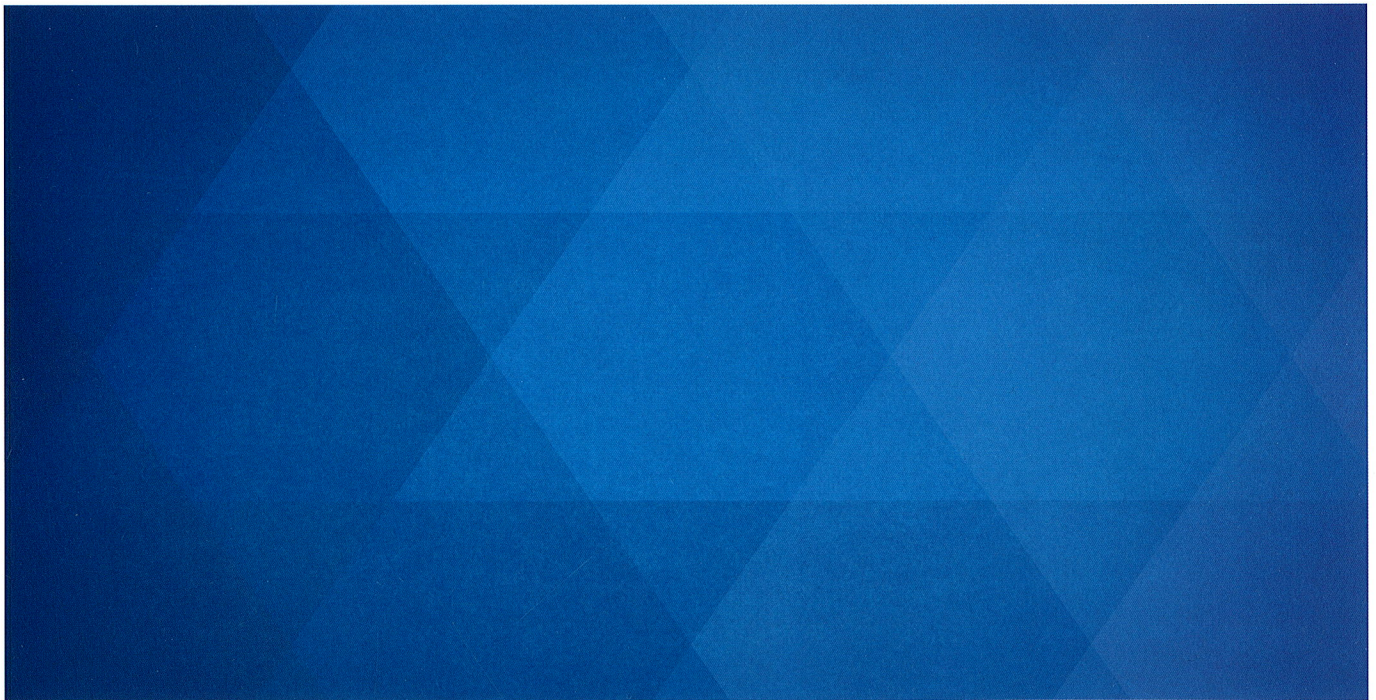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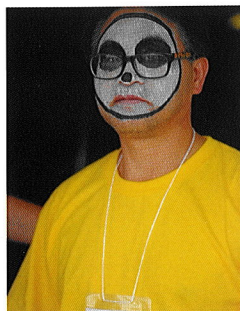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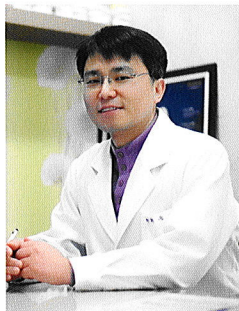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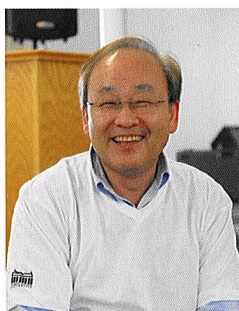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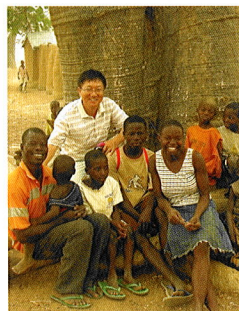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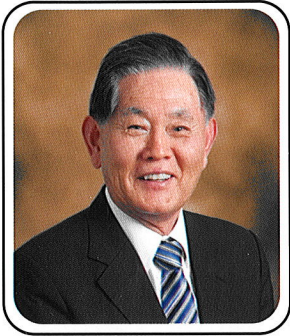
WMU

23rd
COMMENCEMENT
ceremony

SATURDAY, JUNE 7, 2014 at 1 PM
Oriental Mission Church

COMMENCEMENT
c e r e m o n y

WORLD MISSION UNIVERSITY
Empowes people
though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to serve the church and impact the world for christ.

INDEX

발행인 송정명
편집인 임성진, 임종호, 이금희, 이황정
발행일 2014년 6월 2일
발행처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22
www.wmu.edu
wmuinfo@wmu.edu

꿈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묵시는 비전이나 꿈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역경 가운데서 견디어내며 인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꿈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시를 쓰게 하는 여유를 주고 장년들에게는 활력을 불어 넣어 줍니다. 그리고 노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촉매제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 주는 것 보다 꿈을 심어 주는 것이 더 큰 자산을 남기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어린 소년기부터 꿈을 꾸던 사람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부를때는 꿈꾸는 자(Dreamer)라고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어릴 때 꿈을 꾸던 요셉은 자기가 꿈꾼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꿈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어야 됩니다. 환란과 역경가운데서도 꾸어야 합니다. 나는 꿈을 가졌다(I have Dream)고 외치고 있던 미국의 민권운동가요 신앙의 사람 마틴 루터킹(1939.1.15.-1968.4.4)은 인종차별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계속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흑인들은 멸시와 천대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버스를 타도 백인들이 앉는 좌석과 흑인들이 앉는 좌석이 구별 되어 있었습니다. 백인들의 자리가 비어 있어도 흑인들은 백인들의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까지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으로 외치고 있으면서도 백인교회에는 흑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킹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오늘도 내일도 어려움은 첩첩이 쌓여있다. 그러나 나는 꿈을 갖는다. 언젠가는 미시시피 주까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고 나는 꿈꾼다. 나의 사남매가 피부색갈이 아닌 인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나는 꿈꾼다. 남쪽 앨리바마 주에서 검은 아이들과 백인아이들이 정답게 손을 잡고 놀 것이라고 꿈을 갖는다. 이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꿈을 꾸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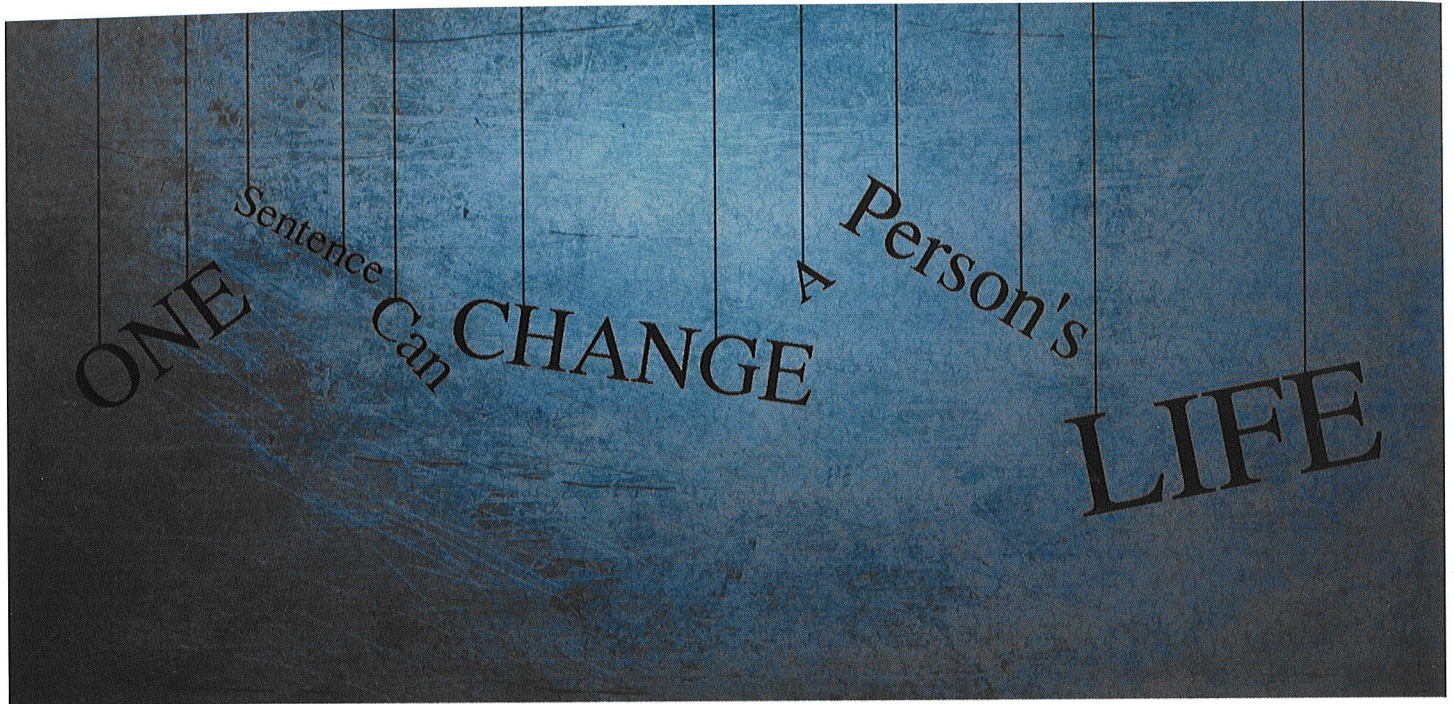
꿈을 꾸었던 마틴 루터의 꿈은 그 가 세상을 떠난지 40년이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실현 되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 것입니다. 미국이 독립한 지 232년 만에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12년도에는 재선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WASP이라는 사회적인 불문율이 있었는데 그 불문율(W: White, AS: Anglo Saxon, P: Prostant)도 깰 수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학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서부의 명문대학이 될 것이라는 꿈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송정명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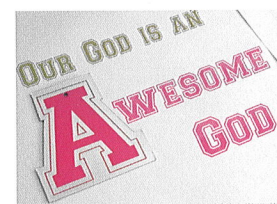
졸업을 돌아보며

Valedictory · 답사

약 5년전에 우연히 '생명의 삶' 에서 월드미션 대학교 광고를 보고 제가 찾고 있었던 학교 일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지원하여 입학하고 지금의 졸업의 시간이 있기까지 어떻게 지나왔는지 제 스스로가 대견하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치과의사로서 치료를 하며 병원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틈틈히 신학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는 과정이었지만,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매 학기 매 과목에 성실하게 임하자는 각오로 왔었는데, 어느덧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곧 졸업장을 받게 될 생각을 하니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동안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참고 온 것이 참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미션대학교에서 배운 신학의 다양한 과목들은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유익을 주었으며, 학업적으로도 깊은 만족과 보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균형을 잡아 주었으며 학문적으로 신학적인 뼈대를 어느 정도 세운 것 같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로 여겨집니다.
인생은 고생을 통과할 때, 진정으로 성장과 가치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5년간의 신학공부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월드미션대학교의 원격과정은 저같이 직업을 가지면서 동시에 신학공부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교육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제 자신이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보통 신학공부를 위해서는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하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길이었지만,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제공한 원격교육과정은 직업의 현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신학공부의 열정을 가지고 공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소중하고 가치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원격교육이지만 교육의 질적인 면은 결코 뒤지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주 배워야 되는 학습진도에 따라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독서를 하면서 레포트를 제출하기 때문에, 성실하게만 임한다면 얼마든지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배움이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과 연계해서 적용하고 삶의 현장의 관점에서 신학공부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더욱 실제적인 공부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 만날 기회가 없지만, 원격상으로 학우들과 교제하며 학습 의견을 나누며 학우들을 알아가는 것도 서로에게 도전과 배움의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그동안 신학공부의 과정들이 마치 좋은 또 다른 추억의 시간들 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저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귀중한 시간과 도약의 계기가 되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학문적으로 한 단계 더 진일보 한 것 같고 신앙적으로도 균형과 깊이를 더해주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음을 감히 고백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행정 담당하신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생 대표
최은종

미주 한인사회의 정신건강

Seminar · 학술세미나 / 조나단 강 박사

얼마전 한인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다른 설문 연구를 한 것이 있다.
Q: 주변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A: Yes. 설문에 참여한 64%의 반응. 그 중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것 같다라고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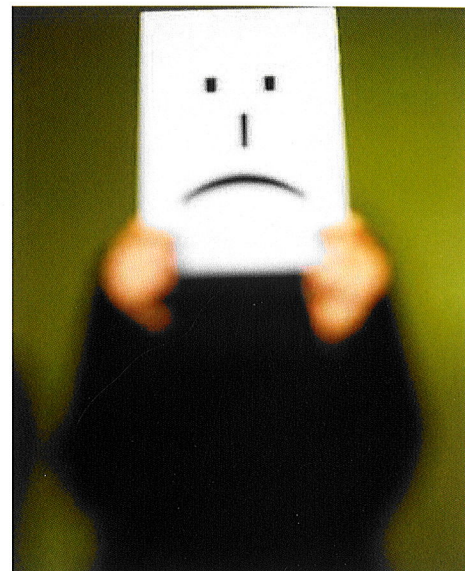
○ 한인지역사회에 가장 심각한 정신질환성 문제/증세 TOP 3
- 우울증 54%
- 치매 15% & 약물중독 15%
- 불안장애 9%

○ 우울증세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 그 사람과 대화 (말해주기, 듣기) 64%
- 정신건강 전문의에게 소개 59%
- 기도해 준다 46%
- 주치의 (medical doctor)만날것을 권유 39%
- 교회/종교 지도자를 찾을 것을 권유 27%

너무나 이러한 반응에 놀라운 것은 정말 우울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거의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우울증은 이제 결코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에 빈번히 일어나는 자살, 우리의 조국은 OECD 선진국가에서 "자살 1위"국으로 낙인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연구에 의하면 아시안 중 이민 1세대에 우울증 발병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다. 그리고 가정폭력 또한 아시안 중에서 가장 많이 법원처리(전체 사례의 50%) 되었다.

2011 가정상담소 자체 정신질환 상담치료 사례의 34%가 우울증이다. 결국 우울증과 불안증이 동전의 양면적인 정신 질환이라면 거의 정신질환중 50% 이상이 우울증으로 직-간접적으로 보고된 것이다. 2012 년 7월 본사 자체내 설문 보고 (at Good Samaritan Hospital)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인의 61%가 중간-심한 우울증세를 보였다. 2009년 자살 연구에 의하면 한인 (32%), 한인을 제외한 타인종 (9%)가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았다라고 답했고, 한인 청소년은 38% 반면에 한인을 제외한 타인종의 22%가 우울증의 발병의 위험적 요소를 가졌다라는 보고가 나왔다.

○ 우울증 (정의):
- 본인, 주변환경/대인 관계,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비관적인 (주관적인) 견해, 평가⊠"그릇된 인지" "왜곡된 인지"
- 무기력/무능력함과 절망적인 느낌
- "우울": 마음이 (근심으로)어둡고, 답답한 상태
- "억울": 억제/억압을 받아 마음이 답답한/화난 상태
- "울화": 마음이 (울울)답답하고 (불)화—분노
- "조울": 경쾌하고 흥분된 상태로 급함, 마음이 어둡고 답답한 상태

○ 우울 증세:
- 우울감, 공허함, 절망감, 좌절감; 자신감 상실, 자포자기
- 죄책감, 무기력감, 의욕 상실,
- 수시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
- 초조, 피로감, 동기부여 저하; 의기소침
- 무가치감, 죄책감 (남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대하기도 부담)
- 수면 시간의 변화
- 강박 증상,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걱정
- 식욕 저하, 체중 감소
- 쉽게 짜증, 대인기피, 외로움, 공격적 분노

- 집중력, 기억력 쇠퇴/저하, 결단력 저하
- 운동/취미생활/활동량 저하; 자율 신경계 이상
- 만사 일이 귀찮아지고, 흥미가 없음
- 작은 일에 상처 잘 받고 쉽게 슬퍼지고 울음이 잦아질 수 있다.
- 두통, 소화불량, 만성 통증,관절통, 요통, 가슴 통증등의 신체 증상

신체 증상을 주로 호소하고 다른 우울 증상은 그 뒤에 숨어 있어서 진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를 '가면성 우울증(masked depression)'이라 한다. 이 동반 증상 때문에 신체적인 문제가 생긴 것으로 여기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검사를 받아보지만 대부분 이상이 없거나 가벼운 이상만이 발견된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의 41배라고 한다.

○ 우울증의 원인:
- "타고나는 기질/성격" & "가정/환경이 주는 영향"—선천적 & 후천적인 요인
- 우울증 발생율: 남자 (5-12%), 여자 (10-25%)—여성은 남성과 달리 여러가지 사회적(지휘, 위치, 역할 기능—가사일, 육아문제), 문화적, 생리적요인이 가중되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1.5-2배 정도 높다.

남성들은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이 숨겨지는 경우가 많다. 담배, 마약, 또는 일 중독으로 우울증을 숨긴다. 남성들의 우울증은 희망결핍증상이나 허탈감보다는 화를 잘내고 쉽게 포기하며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증상이 흔하다. 노인의 우울증은 기억력 감퇴나 표현 부족으로 종종 나타나며, 성격이 조금 까칠해지고 잦은 화를 낼 수 있다. 어린이들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자주 아프며,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1. 심리적 요인
2. 신경내분비와 신경생화학적 요인
3. 신체적 요인
4. 스트레스
5. 계절 우울증
6. 부정적인 성격/사고/성향/시각
7. 유전적 요인
8. 학습적
9. 문화적/민족성/국민성

미주 한인사회의 정신건강

Seminar · 학술세미나

• 우울증과 이민세대 (acculturation): "스트레스"
•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새로운 언어, 문화, 관습, 가치관에 대한 적응
• 인종적 (차별)인 적응
• 정체성 위기및 재성립 (지휘, career, 사회적 위치)
• 체류 신분의 불투명
• 심리-사회적 적응의 도전 (육체) 건강문제
•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 생활고/재정적 스트레스
• 관계적인 적응 (사회/가정적으로); 부모, 자녀, 동료들과의 관계적인 부담/어려움

1.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들이 자동적으로 우울증을 100%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다.
2. 모든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다 스트레스가 아니다.
3. 우울증: 사회-심리적인 관점
4. "경고신호": 우울-불안증은 "마음의 통증": 일종의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차적 문제
우울증은 여러 가지 우울 증상과 함께 인간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차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 대인관계의 어려움
• 부부-부모와 자녀간의 문제
• 성기능 저하
• 직업/학습 문제
• 알코올 또는 약물 및 각종 중독
• 자살
• 신체 질환
• "울화"—부적절한 분노 표출, 가정폭력
• 더 심각한 정신질환-성격장애: 불안증, 강박증

한국서점에 가면 마음을 다스리는 치유관련 책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상처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은 통신, 반도체, 디지털IT, 자동차, 조선, TV가전 등 한국의 첨단일류상품이 전세계에 나가 대히트를 치고 있고, 세계10위권의 경제력, 세계10위권 올림픽 스포츠 강국, 여기에다 한국의 드라마가 전세계 주부들의 눈물을 적시며 광분케하고 있고 아이돌 스타, 싸이 "강남스타일" 등 K-POP으로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열광적이며 선풍적인 인기를 안겨주고 있다. 전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또 있을까? 2차대전 후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지구촌의 이상적 모델국가 대한민국… 이처럼 놀랍고 경이적이며 대단한 국민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인들의 행복지수는 전세계에서 바닥일까? (30 OECD 국가 중 26위), 왜 자살율 1위 일까? 이혼율 1위, "술" 소비량 일위, 교통사고율 세계 1위, 성형왕국: 세계 1위 성형시술, 왜 한국인들 우울증이 이렇게 높아야 하나? 대처능력과 국민성: 문화-사회적 이유를 살펴 보자.

왜 우리는 이런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대처능력이 약할까?

• 문화적/사회적인 이유: (후천적 대처 능력에 관한 것)
1. 깊은 잠재적 충격/트라마:
2. 한 많은 민족: — 동방예의지국,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방의 고요한 나라" Really?
3. 열등감: "일등"되어야 하는 국민
4.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 (친척/친지라도 나보다 잘 되면 나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
5. "극적인 한국인": 승자독식 사회에서 나타나는 1등 아니면 99명 모두가
6. 매사 "참아야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는 민족
7. 체면의 문화
8. "눈치 문화"—남의 눈을 과잉 의식 (본인 소신것 살기 어려운 문화/나라)
9.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선덕여왕—미실: "오직 강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
10. "빨리 많이"—많은 스트레스—많은 스트레스 호르몬
11. "정"문화-모든 것이 좋지만 "선"을 그을 수 없는 문화⊠부담, 갈등, 억지- 결국은 쓴뿌리, 원망, 실망, 분노 (boundary issue)
12. "흩어지면 강하고 모이면 약한 나라"
13. 강한 자존심 (열등감): 노르웨이에도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한국인과 공통적인 민족성으로 자신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바이킹족의 후예로서) 강한 자존심이 있어서 정신적인 고민이 있으면 이를 혼자 끙끙 앓고 절대로 남에게 털어 놓지 않는다.
14. 군중심리에 약한 우리
15. 민족적 "완벽주의"

우울증 치료법
•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극복하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
• 푹 쉬거나 취미를 갖거나 여행을 하거나 마음을 굳게 먹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주변 사람의 (책임없는) 권유는 벼랑 끝에 서 있는 환자를 죽음의 골짜기로 내미는 것과 같다.
• 우울증 환자는 남들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못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더욱 힘들어하고 분노한다.
• 우울증, 특히 심한 우울증은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우울증 치료 방법에는 약물치료, 인지치료, 정신치료, 광치료, 뇌자기자극치료, 전기자극치료 등이 있다.
⇒ 약물치료
• 효과가 빠르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주된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 최근에 개발된 우울증 약물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장기간 복용해도 의존이나 내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 항우울제: 삼환계 항우울제, 단가아민산화효소억제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 불안감, 수면장애 치료시에는 벤조디아제핀계의 진정/안정-수면제
• 기분 안정제: 리티움, 카바마제핀, 발프로에이트
• 약물 치료를 하면 대부분 한 달 이내에 우울증의 주 증상과 동반 증상이 모두 좋아지고, 우울증의 이차적인 문제들도 해결된다.
•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며칠 사이에 불면, 불안 따위의 일부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차츰 우울감, 의욕 저하, 집중력 저하 따위의 증상이 좋아진다.
• 몸과 마음이 가뿐해지고 활력이 생긴다. 공부나 일을 이전과 같이 잘 할 수 있게 되고, 대인관계도 원만해진다.

○ 정신-인지/행동 치료
• 정신치료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우울증세를 깨닫게 됨
• 우울증을 유발한 원인 (의식, 무의식)을 알게 되고
• 이에 따른 대처 방법을 배우게 됨

미주 한인사회의 정신건강

Seminar • 학술세미나

• 그리하여 조기 증상변화의 징후를 빨리 알아내어 가벼운 우울증이 심각하게 되는 것을 초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초기에 조치하도록 도운다).

• 상태가 경미한 경우는 (전문가가 아닌)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 우울증 자가 치료 방법

우울증의 원인을 알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참으로 중요하다. 먼저 그 원인을 찾아 보고 시정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길러야 한다.

• 이타적 봉사/섬기기: 특히 정신적 활동, 즉 이타적 봉사는 우울증 치료의 특효약이다.

• 운동: 음이온이 가득한 실외에서 아침 해를 보면서 운동을 하면 우울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햇볕: 햇볕을 30분 가량 쬐이면 뇌신경세포에서 우울증 치료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다시 생산된다. 우울증 치료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생산되려면 먼저 뇌에서 트립토판이 먼저 생성되어야한다.

• 음식:

· 가장 좋은 트립토판 공급원은 두부이며 콩, 호박씨, 참깨, 아몬드 등이다. 엽산 (folic acid—Vitamin B9) 부족이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엽산 결핍으로 우울증이 생긴 사람들은 보통 항우울제를 복용해도 잘 호전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 강남콩, 녹두, 대두, 팥, 시금치 순서대로 엽산이 많이 함유되어있다. 치료는 간단하다. 엽산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 오메가-3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사도 도움이 된다. 어류의 오메가-3 보다 들깨에서 섭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 균형 잘 맞춰진 단백질, 탄수화물, 과일, 채소 등 음식 섭취

· 식사 때를 거르지 말라

· 당분 섭취/가공된 탄수화물 섭취 감량—과자, 빵, 국수, 감자 튀김☒ 정서/무드 & 신체적인 에너지의 급작스런 변화 (혈당, 호르몬 급 상승)를 가져 온다.

· 가공되지 않은 군 감자, 통밀국수, 현미, 오트밀, 통밀빵, 곡물 (whole wheat, whole grain), 바나나 등 다른 부작용없이 체내 "쎄라토닌"을 올려주는 건강한 음식.

· 비타민 B 계열 섭취: (엽산 folic acid, B-12 량이 떨어지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비타민 B 혹은 citrus오렌지/감귤류 과일, 초록색 잎이 많은 야채, 콩, 닭, 계란, 등 이 좋다.

• 음악: 자극적이지 않은 음악을 들으며 자연을 감상하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

· 음악치료 (보통 크래식)—우울할 때 잘 아는 우울한 노래를 듣는 것은 "독약"

· 즉흥적 음악을 하여 일반적으로 표현 못하는 본인의 마음을 어떤 틀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

· 노래 듣기

· 특별한 음악을 들어서 몸과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음악치료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음악치료는 감상 뿐 아니라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합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치료라는 말에 걸맞게 긴 시간과 무미건조함이 함께 하는 것이다.

· 기분이 들떠있을 때에는 발랄한 음악을 슬플 때에는 차분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다. 음악을 들으면 평온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 수면 조절 하기: 하루에 7-8 시간을 목표

· 너무 많이/적게 자면 기분 안좋다.

· 숙면할 수 있도록 침실을 잘 구성하라.

· 잠을 잘 잘수있도록 시간을 잘키라.

· 긴 낮잠을 피하고, 취침 전 심한 운동이나 신경을 쓰는 활동은 제거

· 스트레스 조절하기

· 스트레스 조절 방법 배우기 (술, 담배, 마약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 Relaxation technique을 배우라. 참 쉼을 배우라.

· 좋은, 믿고 신뢰할 만한 관계형성에 힘쓰기

· 술, 담배, 약물/중독성 제거학기: 술과 담배, 약물은 우울증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중독으로 이어져 심신의 건강과 영적으로도 피폐케 된다.

• 부정적인 생각 바꾸기

·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 같이 하기

· 자신의 한계를 적절하게 수용하기

· 다른 사람 관점에서 날 보기, 나에 대해 판단하고 생각하기

· 생각 (부정적/긍정적) 기록하기

· 방어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 의도적,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좋은 말과 행동하기 F

조나단 강 박사

MERCY

서로 배려하는 삶

Professor Column · 교수칼럼

이금희 교수
WMU 대학학장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서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와 명성, 권력을 다 갖추어도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 냉랭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좋은 관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 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 보아"라는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일을 살펴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살펴 보는, 즉 서로에 대한 배려가 바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배려'라는 단어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또 '배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서 어떤 일들이 마음 속에 떠오르십니까?
저는 배려란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 것을 어느 글에서 읽으면서, 제가 경험한 배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머리 속에 떠올랐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장소에서 느끼는 배려입니다. 바로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화장실에서 접하게 되는 배려의 손길인데요. 남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가방이며 소지품을 들고 다니게 마련인 여자인 저로서는 화장실을 이용하게 될 때는 언제나 휴대한 물건을 둘 만한 곳을 두리번거리며 찾게 됩니다. 그 때 마침, 화장실 문에 가방 걸이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나,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사용자의 마음을 알고 배려한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물건에서 느끼게 되는 배려의 손길도 있습니다. 제게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유난히 애착이 가는 옷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옷을 지은 이의 배려의 손길이 제 마음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칼라와 소매 단이 하얀색으로 처리된 곤색 드레스인데요. 칼라와 소매 단의 흰 부분이 쉽게 더러워지는 것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탈부착식으로 처리해 놓았기에, 더러워지면 언제든지 그 부분만 떼내어 손쉽게 세탁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옷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을 때면, 옷을 입는 사람의 입장에서 옷을 지은 디자이너의 세심한 배려가 제 마음에 와 닿아, 마치 오랜 친구마냥 그 옷에 대한 정이 더욱 깊어지고 입을 때마다 곱게 다루곤 합니다.

제가 장소와 물건에서 느낀 배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제가 섬기고 있는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배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학교 졸업생으로 지금은 목회자로 사역하는 분이 월드미션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사연입니다. 당시 그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방문하여 입학 문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교수님이 화장실에서 세면대를 사용한 후, 휴지로 세면대 주위를 깨끗이 닦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것에 감동되어, 주저 없이 그 자리서 입학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배려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학교 입학이라는 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의 공통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해당하는, 그래서 쉽게 무시되고 마는 삶의 작은 일상적인 일들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작고 사소한 일들에서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런 작은 부분에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큰 것, 거창한 일에서 감동받기 보다는 사소하지만 작은 것에 미친 배려의 손길에서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속에 일어난 감동의 잔잔한 물결은 '이 세상이 참으로 살만한 곳이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 생활가운데 접하게 되는 배려의 마음을 읽어 내게 되면서, 바쁘다는 이유를 대거나 당장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있다는 변명을 늘어 놓으며, 정작 나 자신은 이처럼 작지만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배려의 능력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배려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배려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처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오는 격려와,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안과, 성령님과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겸손한 태도를 갖추게 되어, 비로소 각각 자기 일을 돌아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을 돌아 보는 배려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연합을 도모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접속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배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갖추게 되며, 이는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배려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배려의 극치를 보여주신 한 마디로 '배려의 대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배려의 삶을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 또한 서로에 대한 배려로, 자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F

떠남의 참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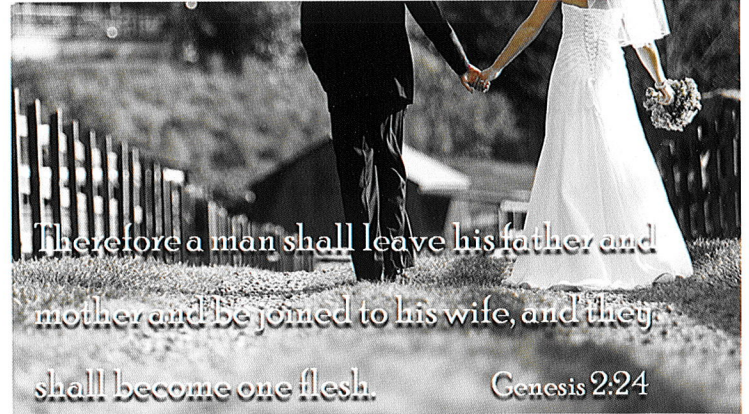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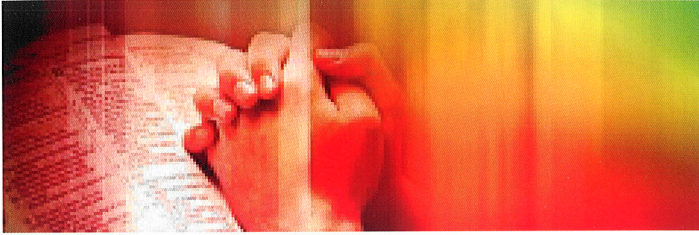
Professor Column · 교수칼럼

김현경 교수
기독교 상담학과

기독교 가정 신학에는 가정을 정립하는 여러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2장 24절-25 말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을 근거로……….. 결혼과 가정의 4가지 단계: 즉, "떠남"leave - "깊은 만남" cleave - "하나 됨" Oneness- 부끄럽지 않은 "친밀함" intimacy (창 2:24)로 정립된 "떠남"의 가정신학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떠남의 개념은 결코 마지막 결론이 아닌 그 다음 단계의 깊은 만남, 하나 됨, 그리고 친밀함을 향한 의미 있는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떠남의 가정신학은 가정의 각 발달 단계와 과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각 단계마다 그 다음 단계를 향해 잘 준비되어 떠나가는 것이 가정의 건강과 성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출생이 엄마의 뱃속을 잘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리면 결혼은 부모를 잘 떠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것이 노년 단계의 과제인 것처럼, 홀로 남게 된 남편/아내가 혼자서의 삶을 잘 마무리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가정의 한 사이클은 마무리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언약의 가정신학이나 경건한 자녀의 가정신학들의 핵심요소들인 소망, 비전 그리고 사명감이 결여된 듯해 보이지만 잘 떠난다는 것이야 말로 그 다음 단계의 삶의 현장을 향해 전진해나가는 성장과 목적 있는 인생의 여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원한 삶을 사모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의 삶을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떠남"은 "머무름" 보다 더 근원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남"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늘 편하지 만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잘 떠나지 못하게 하는가? "거울 너머의 세계"(1991)의 저자 Henry Nouwen은 사고로 인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서는 순간, 강렬한 갈망과 그에 못지않은 저항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가장 강렬한 영혼의 갈망은 이제 지나온 나그네의 삶을 마무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그분과 얼굴을 대하며 더불어 즐거워하고 안식하고 싶은 그 한가지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 일어나는 또 하나의 강렬한 저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살아가면서 미처 마치지 못한 일들과 해결하지 못한 갈등들이였습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우리로 하여금 삶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 해결 되지 못한 분노라는 사실임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들을 용서 하지 못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것들 이였습니다. 결국 용서하지 못함으로 자리 잡은 고통, 분노, 질투, 그리고 상한 감정들은 상처 난 실존 속에 우리들을 꽉 꽉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들이 자유롭게 떠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죽음 앞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단계들을 넘어가고 떠나갈 때 마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아픔들과 상처들을 마무리하고 해결하지 못할 때, 바른 가족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아픔에 대한 보상을 지금이라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서, 또는 주변의 권위자들과 사람들에게서 받아보려고 애쓰는 노력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애씀은 결국 우리들을 떠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성장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우리들의 인격의 한 부분들을 그 자리에 붙들어 놓습니다. 나아가서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보내주지 못하고 묶어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점점 더 강하게 묶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만족과 욕구,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조정들에 대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 포로 된 마음, 그리고 갇힌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운데 있음을 인식 하지 못할 때,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조차 거부해버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한국의 어떤 교회 화장실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렀던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노트를 읽고 혼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위트 있는 발상인지~. 그리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마다 잘 마무리하고 떠나온 삶이라면 머물렀던 자리도 아름답기에 언제든지 그 장소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추억의 현장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졌던 사연들, 관계들, 그리고 모든 만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아픔과 고통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갇혀지고 잊혀지고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옷감처럼 잘 어울려 짜일 수만 있다면 그러한 상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안에서 아름다운 나의 삶의 이야기로 엮여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떠남!!! 그것은 결코 마침표가 아닌, 성숙한 그 다음 단계의 삶을 향한 아름다운 출발임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F

가정의 핵심가치와 교육

Professor Column · 교수칼럼

최윤정 교수
기독교 교육학

문화는 달라도 가족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격언은 모든 민족에게서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생활에 있어 그만큼 가족이라는 요소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모든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류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가정이 있음으로 사회가 존재합니다. 가정은 어린이들의 사회화를 돕는 일차 집단입니다. 어린이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지를 가르치는 것이 가정이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기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가정입니다.

가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첫번째, 문화전수의 기능입니다. 문화마다 고유의 세계관과 핵심가치가 있습니다. 가정은 이러한 가치를 보존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그것을 전수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로부터 문화를 배우고 또 부모들은 어린이들에게 사회규범과 그들의 문화적 행동 방식을 가르칩니다. 가정은 또한 인간이 지닌 윤리나 가치관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두번째, 가정은 개개인이 정체성을 지니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기 전에 아무개의 아들이나 딸로서 먼저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족 안에서 태어났고 독립된 사회적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가족의 이름으로 인지됩니다. 이렇듯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가 될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에게 중요한 사회 정체성을 제공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민족과 문화와 관련있는 전통, 습관, 언어 등을 전해줌으로써 자신이 어느 집단의 일원인가에 대해서도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핵심가치를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배워나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인이라면 기독교 정신과 믿음을 철저히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먹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이 몸에 이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크푸드는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해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자녀들을 위해 올바른 먹거리를 선택할 지혜와 책임이 요구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갖가지 논리와 사상 그리고 풍조가 만연합니다. 공교육과 미디어는 많은 양의 학문과 정보를 쏟아내고 있지만 거기엔 정크푸드와 같이 우리 자녀들의 정신과 영혼을 해치는 것이 많습니다. 부모가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세상의 물질주의와 허무주의 그리고 퇴폐적인 많은 사상에 노출된 우리 자녀들은 생의 올바른 의미와 목표를 상실한 채 연약한 갈대와 같이 살아 나갈지 모릅니다.

특별히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누군인가에 관해 고민합니다. 자아정체성이란 자기의 위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역할, 또 자기의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해답을 찾으려고 몹시 애를 쓰지만 그 해답은 쉽게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사이에 두고 갈등하기도 하고, 친구를 무조건 따라 행동하기도 하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감정대로 나가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역할혼란이라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는 자아정체성을 아직 확립하지 못해 타인에게 자신을 감정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 또는 군중이 열광하는 스타에게 몰입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만 이 시기에 건전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마음을 잡아주고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이 가정과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자녀가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까요?

첫째,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가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근원과, 인생의 목적, 삶의 이유 등의 물음에 대한 해답은 쉬운 것 같지만 실은 인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어려운 명제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정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부모가 말씀에 근거한 확고한 자아 정체성을 심어줄 때 자녀들은 자신에 관한 건전한 자아상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 자신의 삶의 방향과 삶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 즉 무슨 커리어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사람은 자기 인생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왜 공부하며, 나는 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며, 나는 왜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며, 나는 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지,부모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힘찬 엔진을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부모는 자녀의 롤모델이 되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대물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명의 그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세상 팔자소관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본 대로 겪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전철을 밟기가 그만큼 쉽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비판하면서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 부모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와 같이 부모는 아직까지 그 슬하에 있는 청소년 자녀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육할 때 자녀들은 기꺼이 자신의 부모를 롤모델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올바른 부모됨을 위해 노력 하고 또 올바른 가정됨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F

책과 인격

Librarian Column · 사서칼럼

김서영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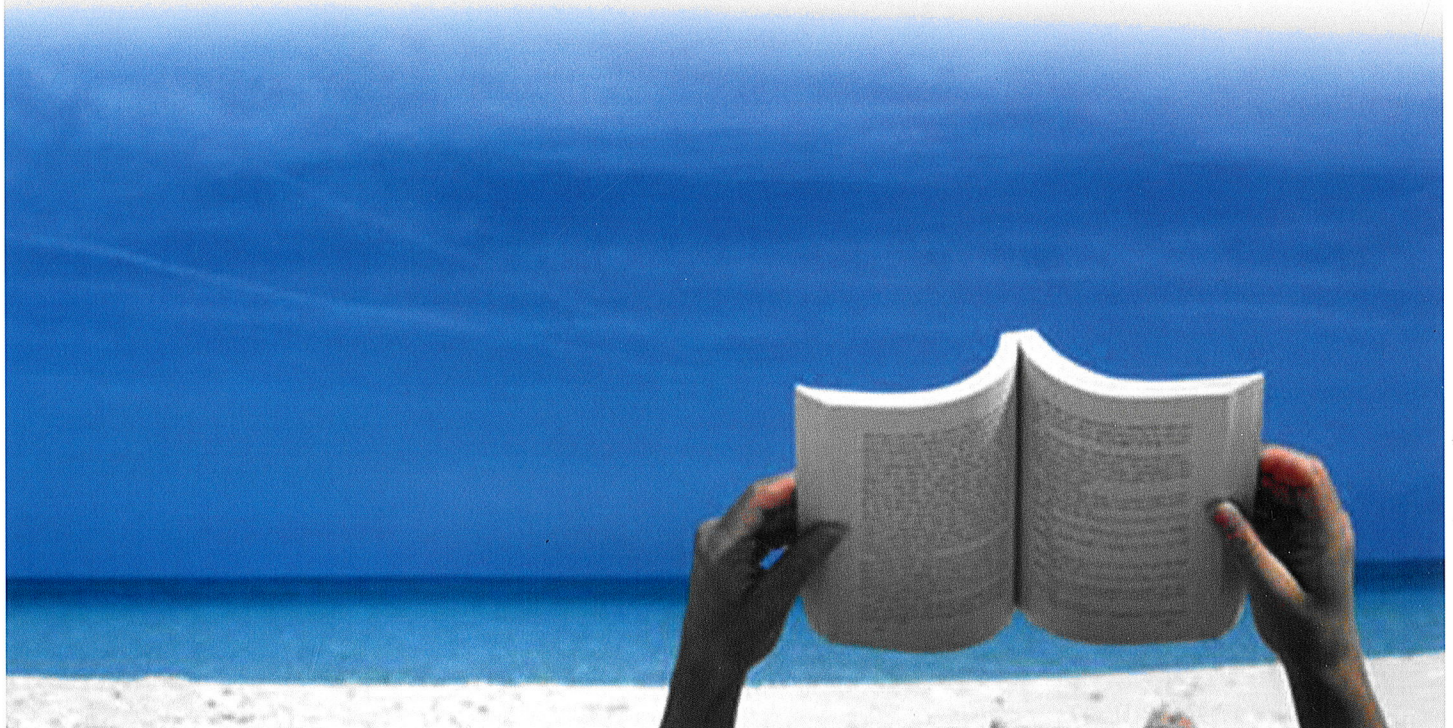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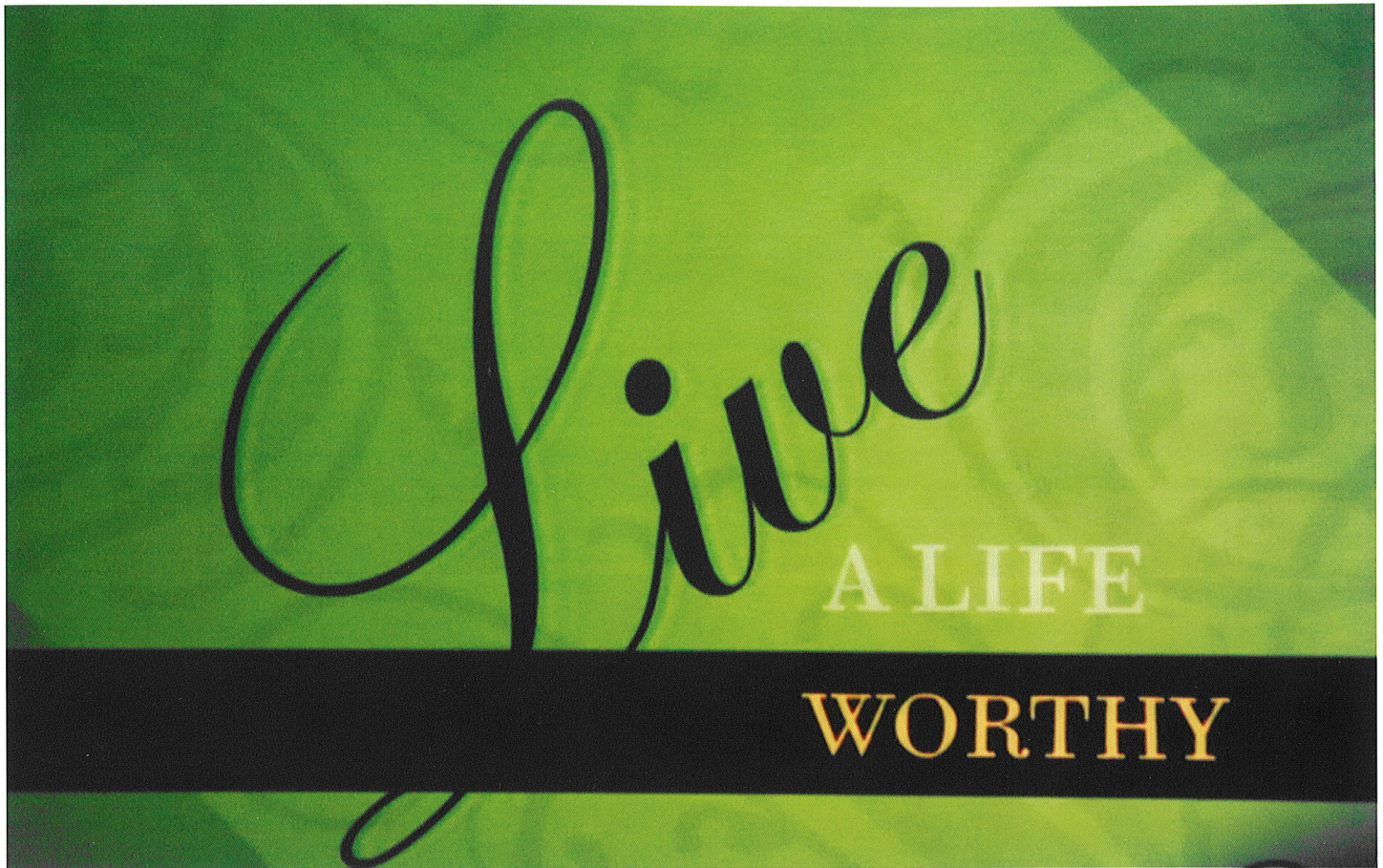
"인격이 성숙하기 위해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인격이 성숙해 지지 않나요?" 하고 당연하게 믿어 온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즉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정말?" 하며 웃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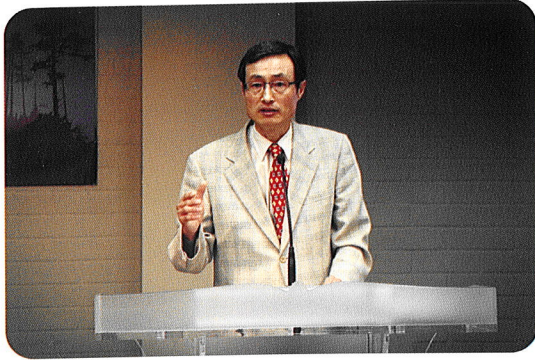
철학자이자 저술가인 탁석산씨는 "책을 읽는 것 외에도 다양한 다른 방식이 있다. 책을 읽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람을 직접 만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권의 책을 낸 JTBC의 주철환 PD는 자신은 책을 안 읽는다고 공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밥을 많이 먹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소화하지도 못하면서 먹기만 하면 '영적 비만'이 된다. 나는 책은 안 읽는 대신 대화를 많이 하고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한다." 하고 말입니다. 광고인 박웅현은 한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김충렬 교수의 노자, 장자 철학 강의 때 몰입해 듣는 순간 문과대 강의실 벽이 뻥 뚫리며 저쪽에서 찬연한 빛이 비춰왔습니다. 황홀했습니다. 좋은 강의를 듣는 건 때론 책 백 권 못지않은 짜릿한 지적 체험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사람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며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는 건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날 수 없을 때, 그에 대한 여러 대안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그를 만날 수 없을 때, 그가 쓴 책이나 그에 대해 쓴 책, 혹은 그림, 음악, 건축, 법, 스타일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책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책을 읽는다는 것에 앞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누구의 글을 읽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책을 쓴 저자를 만나는 것이며 그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TED 컨퍼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연자들로는 빌 클린턴과 빌 게이츠를 비롯하여, 정치인 앨 고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저자 리차드 도킨스, 침팬지 연구로 유명한 제인 구달 박사 등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CD 및 애플사의 첫 맥켄토시 컴퓨터 모델이 발표된 곳도 TED였다고 합니다. 1984년에 시작된 이 컨퍼런스에 청중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회비 6,0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강연 동영상 및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에 무료로 제공(www.ted.com) 하기 시작했는데도 그 비싼 참가료를 지불하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각 분야의 사람들, 바로 인적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강연 후에는 각기 관심있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람과 직접 만나서 듣고 영향을 받는 것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비싼 참가비를 내고 이 곳에 오는 것입니다.

Live
A LIFE
WORTHY

옛날 예수님과 제자들을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쓰시지 않고 제자들과 24시간 함께 지내셨죠. 그냥 함께 살며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분이 쓴 글을 통해 배운게 아니라 함께 살고 사역하며 배우고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그분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가시는지 보며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비로소 그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그분에 대한 글을 써서 남깁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책이 되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 자체가 책보다 더 파워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책을 읽을 때 많은 책을 읽는 것 보다는 정독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정독은 내가 읽고 있는 책과 대화하며 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듣듯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독서라고도 하는데, 책을 읽을 때도 내 안에 질문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좋다고 추천하는 책이 내게는 좋은 책이 아닐 수도 있음은 당연합니다. 내게 그 책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지루하고 진도도 나가지 않는 괴로운 활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두가 추천하는 책보다도 스스로 궁금해지는 책을 골라 읽는 것이 소화도 잘 되고 그로 인해 내 인격이 성숙할 가능성이 보다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사람을 만나 대화하듯이 읽으라는 것은 사실 모든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오고 가는 교감을 이루는 만남을 갖고 있는가? 사람이든 책이든 음악이든 그림이든 자연이든... 그리고, 그걸 통해 생각을 하는가? 질문을 하고, 해답을 찾고자 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인격이 성숙할 수 있다거나, 책을 많이 읽으면 성숙한다" 는 말은 내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굉장히 한정시킨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이중 최고는 "사람"입니다. 생령을 가진 사람!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정말 차원이 제일 높은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가치와 생각은 쉽게 전염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과 좋은 가치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텐데 .... 보다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뭔가 좋은 것을 배우고자 할 때 내 인격은 매일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으로 책을 한 권 쓰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읽는 사람들은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자녀와 배우자, 다른 가족들, 친구, 교회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내 자녀가 나라는 책을 읽는다는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사실입니다. 내 자녀들은 나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매일 아이들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저로서는 그 만남의 1호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 자체에 대한 가치, 만남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비록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막대기' (사무엘하 7:14)라 해도 말입니다. F

Sermon Contest · 설교대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

- 막달라 마리아 편 / 요한복음 20:1~18

임철현 학우

성경에는 예수님께 깊은 감동과 은혜를 입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예수님께 진한 감동을 끼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감동이 컸기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믿음의 고백이나 순종 또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깊은 인상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믿음의 여인 군단 중 몇 명의 예를 들어가며, 그들의 간절한 섬김과 믿음이 예수님께 어떻게 감동이 되었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를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활달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언니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로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은혜와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그녀는 그 당시 노동자 일 년 치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어디서든 기억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최고의 영예를 안겨 줍니다. (마 26:6~13, 막 14:3~9, 요 12:1~8) 한 여인의 믿음의 행위가 예수님께 큰 감동을 줬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의)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환경이었지만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이 여인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음악과 노래를 좋아하여, 천사로부터 처녀의 몸으로 아들 즉 메시아를 낳으리라는 소식을 듣고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여"라고 시작되는 찬송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눅 1:46). 이 찬양의 가사들이 구구절절이 구약의 말씀들을 암송하여 부른 노래임을 보면, 이 여인은 어린 시절부터 말씀 안에서 믿음을 키워온 여인임이 확실합니다.

또한 그녀는 온갖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낳고 헤롯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에까지 피난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여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가나라는 동네의 한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일로 예수님께 긴급하면서도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이 간절한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간곡한 믿음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공생애 시작을 조금 앞당겨 시작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간곡한 믿음의 부탁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일정을 앞당기는 결과를 나으셨던 것입니다(요 2:1~11).

그리고 또 한 여인의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라는 동네 출신 여인입니다. 막달라라는 지역은 갈릴리 해변의 비교적 큰 도시 네 곳 중에 하나로, 직물과 염료 및 향료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귀신이 들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당시 귀신이 들린 자는 가족은 물론 동네에서도 쫓겨나야 할 정도로 천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아니고 일곱 귀신이 들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녀는 남은 삶을 예수님께 바치기로 다짐을 합니다.

성경에는 귀신들렸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음을 받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우깁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고, 보통은 그들을 가족들에게로 돌려 보냈습니다(막 5:19).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며 섬길 거예요. 저는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도록 해주세요!" 그녀의 뜻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께서 그녀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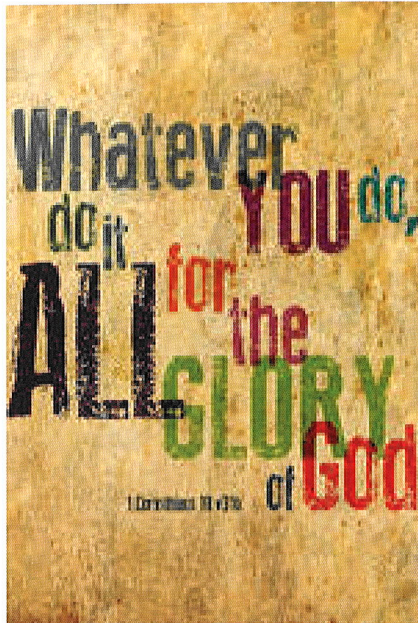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눅 7:47)"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여인을 두고 한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온 정성을 다해 따르고 섬겼습니다. 잘 배우지 못하고 천해 보여,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총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간절함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시신이 처리되는 모든 순간을 지켜봤으며(막 15:40),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부탁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새 무덤에 가져갈 때에도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막15:47). 그날 집에 돌아간 그녀는 예수님께 가져갈 향유와 향료를 준비합니다(눅23:56). 그리고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 미명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막 16:1).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면서 걱정했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가져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간 여인들은 너무 두렵고 놀라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눅 24:4,5).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반신반의하면서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간 데 없고 세마포와 머리에 쓴 두건이 한쪽에 개켜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조금만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질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누가 훔쳐간 것이라면 그 값비싼 세마포는 왜 두고 가고

두건은 왜 개켜놓고 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볼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두 제자는 무슨 영문인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만 펑펑 흘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또 울었더라(요 20:11)"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분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아침부터 여인들이 왔다 간 일과 두 제자들이 다녀간 것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부활 직후에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27)"라고 분명히, 미리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곧바로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내실 계획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저렇게 자신을 걱정하며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저렇게 놔두면 하루 종일 자기를 걱정하며 울고 있을 마리아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오셔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녀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며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공관복음서에 그녀의 이름을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여인들보다 앞서 다음과 같이 기록함으로 그녀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저는 자기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이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여 집사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 집사님은 약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이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립스틱 색깔이 조금 지나치다거나 화장 색깔에 매치가 안 되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참석하던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그녀의 두 자녀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기회가 되면 또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시고, 주일 날 교회에서 만나면 또 달려와서 자기 아들과 딸의 사정 얘기를 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제가 아는 한 저희 교회 성도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녀의 그런 모습을 조금도 얕보거나 우습게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도 존귀하게 보실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두 자녀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두 명의 자녀가 모두 일류 의대를 졸업하고 신실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학우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어떤 자로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비석에 새겨지길 원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왜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 학창 시절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는 확실하게 터득하고 이 학교를 떠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이런 간절함 때문에 우리 주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그런 날을 소망하며 이만 말씀을 맺습니다. F

하나님의 부르심을 돌아보며

Testimony · 간증

졸업을 한다고 하니 꿈만 같습니다. 처음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신학석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은혜가운데 주어졌을 때, 내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흥분되어 있었고, 기대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졸업을 맞이하게 되니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공부과정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며 인격이 성장하는 뜻깊고 의미있는 훈련의 과정이면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동반된 긴 통신공부의 여정이였지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리고 월드미션 대학교의 큰 도움으로, 그리고 많은 고마운 분들의 사랑의 도우심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드디어 졸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은혜 가운데서 이 공부를 마쳤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삼위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저에게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꿈을 심어 주셨고 또한 끝까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분은 로스펠리즈연합감리교회 전 담임이셨던 윤일흠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점점 고갈되어 가는 자신을 느끼게 되였고, 새로운 지식을 더 배우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였습니다. 그때 마침 윤목사님께서 선교지에 찾아 오셨고, 대화하는 가운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더 배우며 성숙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는 저에게 윤목사님은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통신으로 공부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학비를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월드미션 대학의 임성진 부총장님에게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욱 고마운 것은 임성진 부총장님이 기꺼이 저를 받아 주셨고 또한 저의 사정을 헤아려 장학금 혜택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운데 신학석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였습니다.

흥분과 기대 가운데 공부를 시작하였지만 쉽지않은 여정이였습니다. 통신으로 공부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잘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선교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좀 민감한 편이여서 학교에서 우편으로 부친 교재들을 받을 때마다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고 교재를 무사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한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교재를 무사히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자료 부족으로 공부를 하는데 장애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우편으로 교재를 보내다 보니 제한된 양만 보내게 되였고, 게다가 선교지에는 기독교서점이 없는 상황이라 과목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특히 리포트를 쓰거나 졸업논문을 쓰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후에 월드미션 대학교의 인터넷 무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이 올려졌고 또한 인터넷 도서관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여서 많이 도움이 되였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공부를 계속 하였습니다.
도우심이 너무 컸습니다. 자료의 부족과 시간의 부족으로 논문작성이 또 다른 하나의 어려움은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지 사역들은 대부분 고정되고 규칙적인 사역이 아니어서 어떤 주간에는 사역이 엄청 밀릴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진지하게 공부에 임하는 것은 물론 리포트를 완성하는 것도 너무 힘겨웠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리포트를 써야 그 주의 과제를 완성할 수 있였습니다. 정말 사역에 밀려서 완성이 불가능할 경우 교수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며칠 늦게 과제를 제출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교수님들이 저의 사정을 헤아리시며 늘 격려해 주셨습니다.
잘 진척되지 못하여 실망해 있는 저에게 용기를 주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저는 졸업논문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고마운 분들의 격려가 있었기에 저는 용기를 내여 계속 공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학비 후원이 끊어지면서 몇년간 공부를 중지한 것입니다. 윤목사님께서는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정작 마음은 조급하기만 했고 날이 갈수록 희망이 끊어지는 느낌으로 힘이 빠졌고 결국 포기상태까지 이르게 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날 윤목사님으로부터 학비 후원이 마련됐으니 다시 공부를 시작하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처음 입학할 때 못지않게 흥분했고 꿈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저는 진정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얻게 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의 뒤에는 늘 묵묵히 기도하며 사랑으로 후원해 준 사랑하는 아내와 선교지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로스펠리즈연합감리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늘 메일과 전화상으로 따뜻하게 저를 고무격려해 주시며 수고하신 원격과장님들 같은 고마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석사과정 졸업생
김용철 학우

월드미션대학교는 ATS 정회원 인준 신학교입니다.

한인신학교 최초로 ATS 정회원 학교가 되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2013년 8월 8일(목) 대학원 과정에 대한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신학대학원협의회)의 정회원 인준을 취득했다. ABHE와 TRACS에 이어 ATS의 정회원 인준까지 받음으로써 월드미션대학교는 학부와 대학원 전체에 걸쳐 미 교육부 산하 인준기관의 정회원 인가를 모두 받은 최초의 한국계 기독교 대학교가 되었다.

ATS는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풀러, 탈벗, 아주사 퍼시픽, 클레어몬트 등 북미주, 캐나다 신학대학원이 가입한 학력인증기관으로서 신학교육기관들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가장 권위있는 단체이다.

ATS의 정회원 인준을 받음으로 월드미션대학교는 한인신학교 최초로 미국 신학교와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TRACS Member

Tra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ian Colleges and Schools

www.tracs.org

ABHE Member

T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www.abh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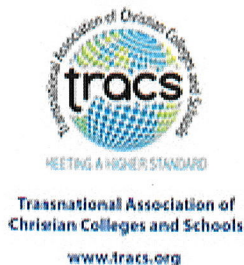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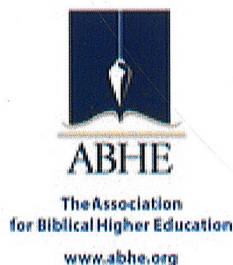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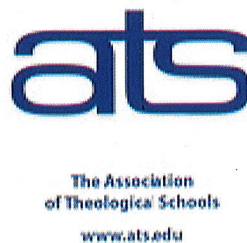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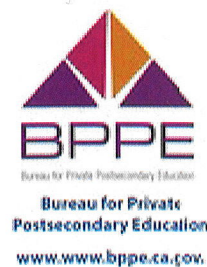
ATS Member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www.ats.edu

BPPE Member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www.www.bppe.ca.gov.

월드미션대학교는 미연방교육부(USDE)와 고등교육인가기관(CHEA)의 인준을 받은 기독교대학연합회(ABHE, 5850 T.G. Lee Blvd., Ste. 130, Orlando, FL, 407-207-0808)와 기독교대학•대학원 연합회(TRACS, PO Box 328, Forest, VA, 804-525-9539) 그리고, 신학대학원협의회(ATS, 10 Summit Park Dr., Pittsburg, PA., 412-785-6505)의 정회원 자격을 취득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립고등교육국(BPPE)의 정식 인준을 취득했다.

2013년 가을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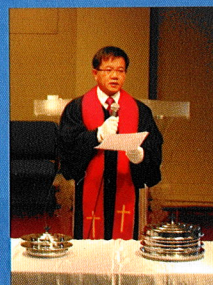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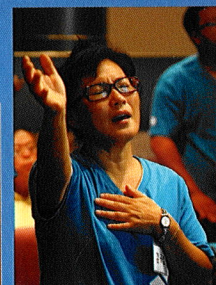
WMU Events · 학교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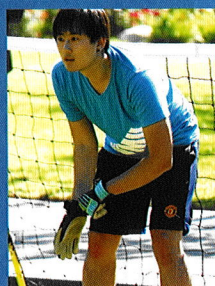
학교 로고송 대회

학생 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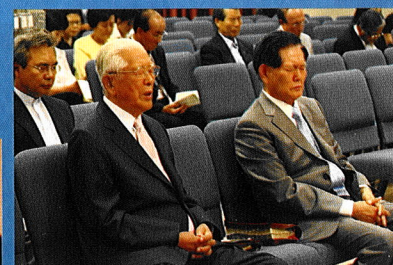
성찬식

개강부흥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월드미션의 밤

음악과 학생예배인도

학생연주회

체육대회

후원의 밤

ATS 인준 감사예배

학생예배

2014년 봄학기

WMU Events · 학교 행사

학생음악회

학술세미나

음악과 심포지움

학생수련회

개강부흥회

입학설명회

원격학우 학교방문

기숙사 기증식

성경암송대회

찬양예배

기독교 상담소 개원

공개강의

제 23 회 학위수여식

• 2014년 6월 7일 오후 1시 • 인도(Presider): 임성진 부총장

---

* 입 장 (Opening Procession) ································· 순서담당자, 교수단, 졸업예정자
* 개회선언 (Opening Announcement) ································· 인 도 자
축 가 (Congratulatory Song) ································· 최윤영 학우
기 도 (Prayer) ································· 송운철 교수
명예박사학위 수여(Conferring of Honorary Doctor Degree) ························ 총장, 부총장, 이사장
최웅섭 선교사(명예선교학박사, HDM)
광 고 (Announcement) ································· 인 도 자
학사보고 (Academic Report) ································· 인 도 자
학위수여 (Conferring of Degrees) ································· 총장, 부총장, 이사장
[Degrees Granted: BABS, BACC, BAM, MAT, M.Div, MACC, MAM]
총장 훈화 (President's Farewell Address) ································· 송정명 총장
졸업생 답사 (Graduate's Response) ································· 최은종 학우
* 헌신의 기도 (Litany of Dedication) ··········· 졸업생, 회중, 교수단 ························ 인도 김광숙 학우

인도자: 이제 학위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졸업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를 당신의 뜻을 따라 인도하소서.

인도자: 졸업생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졸업생: 교회와 세상을 위한 말씀중심과 선교중심의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인도자: 성도 여러분, 졸업생들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회 중: 편협한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온 세상이 치유함을 받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인도자: 졸업생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졸업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을 당신께 드립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당신의 충성스런 종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인도자: 존경하는 교수님들, 오늘 졸업하는 저희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단: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를 떠나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떠나는 졸업생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줄 수 없었고,
저희들도 여전히 필요한 용기, 지혜, 믿음, 겸손, 온유, 따뜻한 마음을 저들에게 풍성히 주시옵소서.

인도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전 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경건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평화의 도구로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 교가제창 (School Anthem) ··············· 1절: 학생 일동, 2절: 회중과 함께 ························ 다 같 이
* 축 도 (Benediction) ································· 임동선 설립자
* 퇴 장 (Recessional) ································· 다 같 이

* 표는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위수여 대상자 명단

- BABS: 김안나, 민동기, 박정은, 정종민, 양보경, 우경선, 유민영, 윤여진, 이복관, 이엘렌, 이예원, 임원균(12명)
- BACC: 김남일, 김수희, 마정순, 박미영, 박미희, 박은미, 박재웅, 백소홍, 정경숙, 황요셉(10명)
- B A M : 최정숙(1명)
- M A T : 김경희, 김광숙, 김용철, 김현욱, 이선정(5명)
- M.Div.: 김광영, 박숙경, 안승태, 우광필, 이성희, 이황정, 전요한, 정성훈, 정유나, 조소영, 최상영, 최은종, 황성일(12명)
- MACC: 김샤론, 오진희, 차남준(3명)
- M A M : 이종수, 정미영, 채영석, 추기호(4명)

수상자 명단

*총장상: 최은종, 김남일 *부총장상: 차남준, 황요셉 *이사장상: 황성일, 마정순 *총회장상: 이성희, 양보경
*동문회장상: 김현욱, 박미희, 이복관 *교수상: 이황정, 채영석, 정성훈 *ABHE상: 우경선, 이예원, 이엘렌

졸업생 현황

본교는 23회에 걸쳐 67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과정별 졸업생 수와 사역현황은 다음과 같다.

* 졸업생 수

과 정	BABS	BACC	BAM	MAT	M.Div.	MACC	MAM	Total
2013	12	1	10	5	12	3	4	47
총 계	285	13	22	48	263	3	40	674

* 사역현황

사역내용	목 회	선 교	진 학	기 타	Total
사역자수	311(8)	99(8)	145(23)	119(12)	674(47)

◎ 광 고 ◎

1. 제 23 회 학위수여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2.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과 그 가족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객들께 졸업생들의 사역을 위하여 계속적인 기도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3. 장내의 질서를 위하여 모든 하객과 회중은 교수단, 이사진, 졸업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교의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동양선교교회와 성도님들, 이사진, 기도후원회, 그리고 모든 교직원과 재학생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 졸업식 장소를 제공하여 주신 동양선교교회 담임 박형은 목사님과 교우일동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